

## 노동자 투신자살 부른 '일더하기 운동'

신발제조업체인 (주)대봉 여성노동자 권미경(22)씨 투신자살사건은 부산지역 신발제조업체의 잇단 부도·폐업사태 이후 '구사운동'이라는 이름 아래 각 사업장에서 노동강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일어나 "누구를 위한 구사운동인가"라는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최근 정부가 권장하고 있는 '하루 30분 일 더하기운동'이 생산현장의 노동자들에게 '초법적'인 시간의 노동을 강요하는 '무기'로 등장해 노동환경을 크

고 노동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구사운동'은 주로 근무시간 연장으로 구체화돼 부산지역의 경우 신발업체를 중심으로 모두 32개 업체가 주 44시간 근무제 실시 이후 토요일 격주 근무를 실시하거나 근무시간을 단축하던 회사들이 모두 48시간 근무제를 실시했던 때로 근무시간을 되돌려놓았다.

부산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주)케이투상사는 근로시간을 무려 하루 3시간 연장했으며 (주)동일화성은 설날전까지 1,3주 토요

이다.

더구나 상여금 및 김장보너스 반납 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생산성 향상을 빌미로 한 이른바 3무운동(무불량 무이탈 무미탈)으로 인한 노동강도의 강화로 이중·삼중고를 감수해왔다.

이런 현상을 경제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사의 자발적인 공동노력으로 미화하는 시각도 없지는 않으나, 이른바 '민주노조'가 거의 없는 신발업체의 현실로 미뤄볼 때 사용자와 노조 집행부의 '담합'에 의한 강요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갖고 있다.

'고무산업노동민주화추진위' 소속 해고노동자 정미영(30·여·

# 노사협력 탈쓴 '노동연장 무기'

## 부실경영·부도 책임 떠넘겨 희생 강요 일주일 평균 6시간 늘어나 격무 시달려

게 악화시키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올들어 지난 10월까지 아폴로 제화 등 부산 신발업체 1백10여개가 폐업해 위기의식이 고조되자 업체는 산업합리화업종 지정 등의 지원대책을 정부쪽에 요청하는 한편 노동자들에게는 '공동의 노력으로 난국을 타개하자'는 구호를 내걸고 '구사운동' 및 '생산성향상운동' 등을 부추겼다.

부도로 폐업위기를 맞았던 대광화성이 회사를 살리기 위해 시작한 '구사운동'이 일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급기야 각 업체에서는 노동자들에게 위기의식을 불어넣어 '구사'를 명목으로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

일 휴무제를 잠정 폐지했고 △(주)동아상사 1,3주 토요일 정상근무 △(주)삼화 10분 일 더하기 △대양고무 1,2,4주 토요일 연장근무 및 3주 토요일 정상근무 △세신고무·유성산업 1시간 더 일하기 등을 실시하고 있다.

심지어 (주)세원은 하루 1시간 무임금 일하기 운동까지 실시하고 있으며 세화는 10월 체결 예정이던 내년도 단체협약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등 탈법적으로 노동자들의 희생을 공공연히 강요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잔업을 포함해 주당 50시간 이상 일해온 신발업체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은 무려 주당평균 6시간이 늘어난 실정

전 진양고무)씨는 "구사운동은 모든 부실경영이나 부도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뒤집어씌우고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는 노동자 목조르기 운동"이라고 주장했다.

부산대 김석준 교수(사회학)는 "현저 신발업체 등이 맞고 있는 경영위기는 그동안 노동자들의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막대한 이윤을 챙긴 기업주들이 이윤을 기술이나 신제품 개발 등에 투입 하지 않은 결과로 맞게 된 것"이라며 "이른바 '구사운동'이 총액임금제 및 시간제근로 도입 등 노동통제정책 추진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마저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이수윤 기자>

## 부산 노동자 자살 관련 대책위 구성 항의 집회

[부산=최익림 기자]속보=신발제조업체 (주)대봉(대표 조우준·부산시 사하구 신평동 499) 노동자 권미경(22·여)씨 투신자살과 관련해 부산지역 11개 재야단체 등은 7일 '고무노동자 권미경씨 사인규명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뒤 항의성명을 발표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관련기사 13면>

대책위는 성명에서 "권씨의 죽음은 최장노동시간 저임금에 시달리는 고무사업장에 정부가 추진중인 '30분 일 더하기 운동'이 확산되면서 빚어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권씨 죽음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할 것 △(주)대봉은 여성노동자에 대한 무자비한 노동착취를 중단할 것 등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이날 오후 회사를 항의방문하는 한편 퇴근시간인 오후 3시 회사 정문 앞에서, 오후 5시에는 고신의료원에서 각각 규탄집회를 가졌다.

91. 12. 8